

군민 문화 복지 향상 '탄력'

무주군,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특히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컨설팅 및 콘텐츠 발굴, 문화 인력 양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뒷받침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다.

군은 사업관련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역문화 협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 뿐만 아니라 인구소

멸 고위험지역인 무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지역맞춤형 컨설팅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문화로 적극 대응해 지역의 활력을 높여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한층 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매결연도시와 도내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응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고향사랑기부 동참

자매결연 5개 지자체·전북 13개 시·군에 기부금 기탁

무주군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매결연도시와 도내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응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NH농협 무주군청 출장소를 찾아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중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의왕시, 부산 기장군 5개 지자체와 전북 도내 13개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황 군수는 "이번 기부가 자매결연도시와 무주를 포함한 전북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 도내

시·군과의 교류를 넓히고 상호 간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에 접속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무주군에 기부하면 기부에 대한 감사로 무주반딧불사과, 옥수수, 머루와인, 벌초대행 등 39개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하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따라 적극 참여 촉구

진안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에 나섰다.

군은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실내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

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보건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고위험군의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현재 군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 전체 시·군 중 60세 이상 접종율은 3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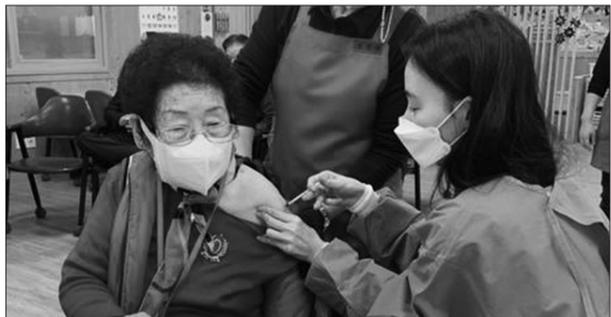
동절기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 대상으로 하며,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감염에 취약하므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정신시설, 장애인·노숙자 시설뿐만 아니라 결핵·한센 시설,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 접종 범위를 넓혀 접종 권고하며, 요양·정신·장애인·노숙자 시설의 경우 보건소 및 촉탁의료기관에서 직접 방문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접종 사전예약 시 사전예약 누리집, 지자체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약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구세의원(월~토) △김홍기가정의원(월~토) △마령가정의원(월~토) △마이외과의원(월~금) △송외과의원(월·화·금) △우리가정의원(화·목·토) △의료원(월~토) △진안의원(화·수·목·금) 등 진안 위탁의료기관 8곳에서 가능하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착용 준수,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에 나섰다.

장수읍,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장수읍사무소에서는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읍에 따르면 산불취약지역에 7명의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산불예방 감시

활동과 무단입산자 단속, 산림연접지역 무단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읍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단 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2023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취약계층 밀착형 관리,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통해 소각산불 발생률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심식당 10개소 지정 추진

진안군은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안심식당 지정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정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 10개소로 진안군 홈페이지 안심식당 지정사업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민원봉사과 위생팀(430-2315)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430-270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식당을 말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이 부착되고, 찬기, 집게 등 안전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이 지원되며, 민간 포털 및 지도 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진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개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신규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연시총회·여성리더양성교육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1일 세미나실에서 2023년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연시총회 및 여성리더 양성교육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시총회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행사를 소개하고, 장수군 생활개선회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3년도 활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농촌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과제교육으로 천연 화장품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이 농촌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행복하고 화목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확대

진안군은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도내 군단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만 13세~18세에서 만 8세~18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3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만 8세~12세 초등학생에게 월 3만원, 만 13~15세 중학생에게 월 3만원, 만 16~18세 고등학생에게 월 5만원을 포인트 충전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드림카드를 사용할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기존 기타시설(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에 대한 사용예

한을 지원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면단위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와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교통수단(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해 지출영수증과 청소년 소유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면 급식카드 사용분 야간 품목 지출이 가능했지만, 편의점 사용목표에 대한 시스템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품목에 대한 제한사항이 조정될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희망차게 자라는 데 진안군이 앞장서겠다"며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